

시대의 흐름에 따른 피아노 페даго지의 재조명*

김 신 영**

본 연구는 피아노 페даго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국내 대학에 피아노 페даго지의 새로운 학문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피아노 페даго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되었는지 살펴보고, 미국 주요 학술 단체에서 제시하는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대학 3개교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에 기초하여 국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학문의 도입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의 피아노 페даго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석사과정 운영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였다. 앞으로 대학과 학회가 서로 협력하여 피아노 페даго지의 새로운 학문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피아노 페даго지,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피아노 페даго지의 교과과정

차 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 II. 피아노 페даго지의 기본개념
 - III.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 1. 미국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 2.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 IV.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교과과정
 - 1. 미국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 2.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17.

** 국립목포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피아노 전공자들은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피아노 개인레슨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

19세기에 미국의 많은 피아니스트들은 유럽의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수학을 하면서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피아노 교수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메이슨(W. Mason), 드레이삭(A. Dreyschock), 리차슨(N. Richardson)과 같은 교육학자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과거의 교수법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새로운 개념의 피아노 교수법에 관한 책을 발간하면서 미국 피아노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유명한 연주자 또는 피아노 교육학자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테크닉, 작품 해석, 유명한 피아노 교사의 교수법 등을 주제로 하는 *Piano Mastery, Talks with Master Pianists and Teachers* 와 같은 책들이 출판되는 등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Bartels, 1960; Camp, 1981). 이에 부응하여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피아노 교육학자들은 테크닉을 강조하면서 기계적인 반복학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19세기의 모방교수법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새로이 개발된 톱슨, 베스틴 등 피아노 교재가 들어와 소개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피아노 페다고지라는 새로운 학문이 대학을 통해 수용되기보다는 출판사에서 초보자를 위한 교재나 교수법이 소개되면서 사회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피아노 교사에게 먼저 투입됨으로써 대학 교수들은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로 인하여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에 무관심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의 교과과정 및 운영 등에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피아노 페다고지에 대한 기본개념 및 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장차 피아노 페다고지 학계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의 기본개념과 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피아노 페다고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본다. 그리고 미국과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의 배경과 이를 기초로 하여 운영하는 석사과정 교과과정을 비교해봄으로써 국내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의 기본적인

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장차 피아노 페даго지 학문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과 제한점을 두었다.

- 먼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20세기에 부각된 피아노 페даго지의 새로운 학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참고문헌과 선행연구,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 국내에 피아노 페даго지가 도입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피아노 교재 출판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 국내 대학에 개설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입학요건, 졸업요건, 교과내용에만 국한시켰으며, 각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대학원 요람, 학과 소개 및 학과 내규,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미국 주요 학술단체에서 제시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가이드라인과 미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살펴본 후 국내 대학에 개설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비교하면서 피아노 페даго지 학문의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피아노 페даго지의 기본개념¹⁾

‘피아노 페даго지’라는 단어가 인제 생소한 말은 아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피아노 학원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아노 페даго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

1) 피아노 페даго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제, International Piano에서 발췌하였음(김신영, 2008).

‘피아노 페다고지’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피아노 교육의 교육적, 시대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피아노 페다고지의 기본개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점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보다 단순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반복학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심리학자 듀이(J. Dewey)가 1890년대 말 학교교육의 반복 암기교육을 비판하는 책을 출판하고 되었고 1900년대 초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피아노 교육 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많은 피아노 학습자들은 언젠가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새로운 상황에서 음악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악곡에 대한 음악의 이해가 부족한 채 다가오는 시험, 연주, 오디션 등을 준비하기 위해 테크닉적인 정확성과 암기에 전념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반복연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학습의 접근에 대한 비판은 1940년대 작곡가 델로 조이오(N. Dello Joio)가 새라 로렌스(Sarach Lawrence)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음악의 기초가 빈약한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포괄적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1950년대 후반 본격화되어 미국음악교육자협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MENC)의 주관 아래 추진되었다. 포괄적 음악성이 강조하는 것은 음악의 기본 영역인 연주, 분석, 비판적인 감상, 창작이 개인레슨 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통합되었을 때 학생의 전공학습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시대적 변화에 따른 피아노 교육의 변천

과거의 전통적인 피아노 교수법은 음 읽기, 정확한 리듬 익히기, 그리고 어려운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 선생님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앵무새처럼 기계적인 반복연습에 전념하는 접근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피아니스트들은 자신이 익힌 연주 기법으로 피아노를 어떻게 연주하는가를 보여주고 사소한 것을 수정하면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왜 그렇게 처야 하

는지' 음악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원리를 무시한 19세기의 진부한 모방교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가드너(H. Gardner)는 자신의 다중지능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을 통해 음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영역과 심동적인 영역 못지않게 인지적인 영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Gardner, 1983). 그러나 오늘날 많은 피아노 교사들은 실기와 음악사, 음악이론과의 연관성을 무시한 채 테크닉의 정확성과 암기를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모방과 사소한 것을 수정하면서 '결과 중심적인 접근(product-oriented approach)'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아노 교육은 학생들의 음악적인 성장이 제한될 뿐 아니라 더욱이 학생 스스로 음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사회적 측면에서의 관점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은 장차 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적인 연주자와 지도자(artist and teacher)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피아노 전공자들이 졸업 후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 실내악 등 연주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아노 전공자들은 방과 후 학교, 개인지도, 피아노 학원 등에서 유아과정, 어린이 초보자, 성인 초보자, 전공자 또는 아마추어 등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다. 따라서 미래 피아노 교사들은 전문 음악교육자로서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그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학위 과정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지도에 있어서도 전문가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주자 양성에만 주력하는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피아노 전공자들은 장차 피아노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학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작곡자의 음악적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대단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의 연주에만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전통적인 교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많은 어린이들은 점차적으로 피아노 음악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음악공부를 중단하기도 한다.

4. 음악분야 전문화과정에서의 구분

20세기 초 이래로 음악분야 전문화과정에서 음악전공자들은 교직이수 교과목에 중점을 두는 ‘음악교육전공’과 테크닉적인 기술이 강조되는 ‘연주전공’ 중에서 선택해 왔다. 두 분야 모두 음악교육의 기초가 되는 예술적인 감각의 질을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주를 잘하는 학생은 연주전공을, 그렇지 못한 학생은 음악교육전공을 선택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훌륭한 음악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주능력은 물론이고 음악교육에 대한 명백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로빈슨(H. Robinson)과 자비스(R. L. Jarvis)는 성공적인 피아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주능력은 물론 음악의 미적인 가치, 연주의 가치뿐 아니라 음악교육에 대한 명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Robinson & Jarvis, 1967, p. 1).

지난 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피아노 전공자들에게 교사 연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많은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1970년대 들어와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다양한 학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내용을 다루며 테크닉과 레퍼토리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뿐 아니라 폭넓은 음악성(musicianship)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주법과 앙상블 연주, 그리고 기능적인 기술(functional skills)²⁾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Ⅲ.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1. 미국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1)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의 역사적 배경

(1) 피아노 클래스의 탄생

피아노 페даго지 코스나 학위 프로그램의 가장 중대한 발전은 지난 40여 년 동안

2) 기능적인 기술은 피아노 전공자나 피아노 비전공자에게 폭넓은 음악성을 길러주기 위해 기초적인 피아노 학습과정인 청음, 초건, 이조, 화성, 즉흥연주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 영역을 다룬다.

일어났지만 피아노 페다고지 수업의 근거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815년 독일 음악교육자 로지에르(J. B. Logier)는 더블린(Dublin)에서 초급 수준의 학생들 뿐 아니라 고급 수준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피아노 클래스를 가르쳤다. 1818년 로지에르로부터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의 교수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미국 피아노 교육학자들은 필라델피아와 뉴욕에서 가르쳤다(Logier, 1818).

한편, 1800년대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음악교사 훈련을 위한 컨벤션(convention)이 열리는 등 교사양성기관이 생겨났다. 1829년에는 가창학교(singing school)의 교사 훈련을 위한 최초의 컨벤션이 뉴 햄프셔(New Hampshire)주 콩코드(Concord)에서 열렸고, 이어서 위스콘신(Wisconsin) 등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2) 교사 교육의 필요성 대두

1800년대 중엽에 이르러 가창학교를 통해 대중들에게 음악교육이 소개되면서 그룹피아노 클래스가 미국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1854년 런던인 버로우스(J. F. Burrowes)는 개인지도나 피아노 클래스를 위해 음악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Pianoforte Primer*를 보스턴에서 출판하였다(Lindstrom, 1976). 19세기 후반 크레인(J. E. Crane)은 미래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실습, 참관수업, 지도의 원리와 같은 현행 피아노 페다고지 강좌와 일치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Keene, 1982). 1887년 캐디(C. B. Cady)는 로지에르처럼 음악성 향상을 위한 그룹지도에 관심을 두었으며 교사 훈련뿐 아니라 초급에서 고급수준에 이르기까지 피아노 그룹지도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896년 뉴욕에서 스토키(B. Stockey)는 피아노 초보자를 대상으로 예비 피아노 클래스 교육을 위한 10주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Richards, 1978).

(3) 피아노 클래스의 확산

1913년에서 1926년 사이에는 미국 전 지역에 걸쳐 공립학교에 피아노 클래스가 설치되었으며 피아노 클래스 지도를 위한 교사들을 훈련시켰다. 1919년 기딩스(T. P. Giddings)는 *Public School Class Method for the Piano*를 출판하고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서 피아노 교사들에게 그룹피아노 테크닉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을 하였다. 1924년 미즈너(W. Otto Miessner)는 미즈너협회(Miessner Institute)를 설립하고 피아노 음악 및 페다고지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26년 미국음악감독협회(Music Supervisors National Conference, MSNC)는 공립학교에서의 피아노 교육을 증진시키고 피아노 클래스 권위자를 양성하기 위해 피아노 분과를 만들었다(Monsour, 1963). 1929년 쉘링(E. Schelling), 가일 해크(Gail M. Haacke), 찰

스 해크(Charles J. Haacke), 맥코나디(O. McConathy)가 쓴 *Oxford Piano Course*는 1930-40년대에 피아노 클래스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던 교재 중 하나로 자세한 교사 지침서를 제공하였다.

(4)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의 등장

1920-1930년대에 걸쳐 피아노 클래스의 움직임이 대중화되었다. MSNC의 피아노 전문 교육자들은 피아노 클래스 안내서인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하고, 교사 연수 자격증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미즈너는 교사 연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사 연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Fisher, 2010).

피아노 클래스 교육은 대학에서도 인기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1925년 버로우(R. Burrow)는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에서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그룹피아노지도와 스튜디오 피아노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페다고지 강좌를 최초로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였다. 1931년 여름학기에는 성인 초보자를 위한 코스를 제공하였다(Fisher, 2010). 이어서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등 많은 대학에서 피아노 연주전공 프로그램에 피아노 페다고지 강좌를 포함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

1956년 처음으로 볼 주립대학교(Ball State University at Muncie, Indiana)에 전자피아노 실습실이 설치되었다(Richards, 1978). 1960년대 이래로 미국 전 지역 대학에서 피아노 비전공자를 위한 피아노 클래스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미래의 피아노 교사 훈련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대되면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2) 피아노 페다고지 교재와 조직단체의 활약

(1) 교사 교육의 전문화

많은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53년 미국음악학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NASM)는 매년 갖게 되는 정기적인 행사에 개인 피아노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를 다루는 패널을 포함시켰다. 이 모임에서 패널은 연주자와 미래의 피아노 교사로서 양성하기 위해 피아노 전공자에게 교사 연수를 위한 교과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Milliman, 1992). 1960년대 들어와 크로니스터(R. Chronister), 클락(F. Clark), 페이스(R. Pace) 등 피아노 초급 교재를 집필한 교육학자들의 열성적인

워크숍을 계기로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공누이, 2007). 이 시기에 미래 피아노 교사 연수와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대되면서 여러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의 가이드라인

197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각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과내용에 따라 학위명을 달리하여 대학과 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이 개설되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학위명은 B.M. in piano performance with some training in pedagogy, the M.M. in piano pedagogy, the M.M. and D.M.A. in piano performance and pedagogy, the P.H.D. in music education with an emphasis in piano pedagogy, Ed. D. 등이다.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과정이 급속히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학자들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NASM은 미국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MTNA)와 함께 피아노 전공자에게 페даго지전공(with a teaching major in applied music) 음악학사(B.M.) 학위를 위한 기준을 개발했다. 그 이후 1980년대 우즐러(M. Uszler)와 라리머(F. Larimer)는 NASM, MTNA 및 기타 여러 국가 기관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대학 교과과정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의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핸드북(A Handbook of Information and Guidelines) 2권을 출판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주를 강조했다는 것이다(Lyke et al., 2011).

(3) 최근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피아노페даго지협회(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NCPP)는 1980년 이래로 피아노 교사 연수 및 피아노 페даго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년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NCPP에 참석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어떻게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교과과정을 만들어야하는지” 패널 토론에 전념하였다. 1986년 NCPP는 지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강좌 세션을 마련하여 숙련된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88년 이래 MTNA는 매년 학생 공개강좌 세션을 마련하여 피아노 연주나 피아노 페даго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Milliman, 1992).

미국에서는 2000년 처음으로 그룹피아노와 피아노 페даго지 포럼(National Group Piano and Piano Pedagogy Forum, GP3)이 개최되어 연 2회의 컨퍼런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대학에서 그룹피아노를 강의하는 교수들이 미래의 진로 방향을 세우기 위해 교수전략 및 관련된 연구를 공유하는 토론의 공간이다. 1998년 첫 번째 온라인 키보드 학술 저널인 피아노 페даго지 포럼(Piano Pedagogy Forum)이 발행되었다. 매년 3회 발행되는 이 저널에서는 이슈마다 최소한 하나의 논문(article)은 특별히 그룹 피아노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Fisher, 2010).

2.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의 발달사

1)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의 역사적 배경

(1)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도입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와 학위 프로그램은 199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피아노 수업은 1900년 대 초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M. F. Scranton)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비롯되었다³⁾. 이화는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인가를 받아 음악과를 창설하고 피아노전공을 설치하여 실기와 이론의 균형을 강조하는 미국의 음악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들어와 미국에 크게 확산된 피아노 클래스의 열기로 인해 피아노 지도자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피아노교수법이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실시되었다.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는 국내 최초로 피아노전공을 설치하여 피아노 연주자의 육성과 더불어 피아노 교사 연수를 병행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유학 후 부임한 교수진(김애식, 1923-1947)에 의해 미국의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피아노 지도자 교육의 육성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1930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에서는 피아노 초보학습을 위한 교재 미즈너의 『피아노선율법』(W. Otto Miessner의 *The Melody Way*의 편역)을 출간하고, 당시 미국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피아노 페даго지 신교재의 도입과 아울러 20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선진 피아노 페даго지를 도입하였다(최승현, 2006). 이에 1930년에 개편된 정규 교과과정에 클레

3) 1909년 ‘음악’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개인레슨이 본격화되어 월 50전을 내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 학생이 한 명 있었다(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1994).

스 피아노, 클래스피아노교수법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음악과 교과과정의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영(Mary E. Young), 우드(Grace H. Wood), 모크(Mary V. Mock), 골만(C. Gorman)의 외국인 음악과 교수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한국인 음악과 김애식 교수가 퇴직한 후 1948년과 1957년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클래스피아노, 클래스피아노교수법이 잠시 폐지되었다가 클래스피아노는 1961년, 피아노교수법은 1975년에 다시 개설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1975년 이화여자대학교에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가 교과과정에 개설되었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시키고 피아노 교사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했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출판사를 통한 피아노 페даго지 도입

시대적 흐름에 따른 피아노 교육의 동향이 바뀌면서 미국에서 많은 피아노 교재들이 개발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던 새로운 교재들이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출판사를 통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 피아노 페даго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 세광출판사에서 가온 다 접근 방식 교재 중 가장 성공적인 톱슨 교재를, 1980년 음악춘추사에서 점진적인 다조성 접근법인 베스틴 교재를 도입하여 소개하였다, 이어서 1992년 상지원에서 가온 다 접근법, 음정적 접근법, 그리고 다조성 접근법을 결합하는 절충식 접근인 알프레드 교재를, 1998년 디지털 피아노 회사 벨로체에서 가온 다 접근법, 음정적 접근법, 그리고 다조성 접근법을 결합하는 절충식 접근인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를 전국 각 지역에 널리 홍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출판사에서 악보를 패턴(음정과 화음의 모양)으로 읽는 독보법을 강조하는 피아노 석세스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출판사들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재의 특징 및 교수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격증 과정을 제공하거나 단·장기 교육 연수 일정을 계획하여 피아노 교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피아노 교재들이 국내에 도입되고 미국 유학파들이 귀국하여 활동함에 따라 1990년대 초 피아노 페даго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여러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대학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클래스피아노, 그룹피아노교육, 피아노페даго지개론, 피아노지도실습 등 다양한 교과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

쉽게도 피아노 교재 출판사 교육 담당 강사가 여러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를 강의하고 학점과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피아노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피아노 교육에 종사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전문 연주자뿐 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가천대학교(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 석사과정이 신설된 이래로 2018년 현재 10개교 11개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살려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이 소속되어 있다.

(3) 조직단체의 활약

국내에서 학위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시작할 무렵 1998년 12월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Korean Association of Piano Pedagogy, KAPP), 2008년에는 한국피아노페даго지연구소, 2016년에는 한국피아노교육협회 등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의 여러 조직단체들이 생겨났다. 이 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전문 연주자와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한 점을 볼 수 있다.

KAPP는 창단 이래로 거의 10년 동안 피아노 교사와 미래의 피아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지도자세미나, 입시생 연주평가회를 갖는 정도의 활동에 그쳤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09년 학술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피아노 페даго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피아노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공개지도 세션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 세션이 폐지되고 마스터 클래스와 피아노 교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한국피아노페даго지연구소는 지도자세미나, 집중실기과정, 마스터클래스, 입시평가, 콩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 한국피아노교육협회는 피아노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음악인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모임 단체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개인레슨, 마스터클래스, 레슨법세미나, 연주회, 피아노 교재 개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피아노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피아노교수법연구소가 있으며, 피아노 교사 모임 단체인 피아노 페даго지 연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사훈련을 하고 있다.

IV.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교과과정

1. 미국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1) 미국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학위 과정의 가이드라인

1970년대 미국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문적인 조직단체가 설립되고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창단된 NCPP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84년에는 NCPP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사학위 과정의 가이드라인, 1986년에는 석사학위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핸드북이 최초로 발간되었다(Uszler and Larimer, 1986). 같은 시기에 NASM에서는 1985년 학사와 석사과정의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핸드북에 제시하였다. 그 이후로 NASM은 2년에 한 번씩 학부와 대학원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핸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미국키보드페даго지협회(National Conference on Keyboard Pedagogy, NCKP)에서는 2004년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NASM에서 제시하는 석사학위 과정의 가이드라인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는 NASM 핸드북은 2009년부터 동일한 페даго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최근까지 제시하고 있다. 2017-2018 핸드북에 제시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학위(Master's Degree in Pedagogy)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ASM, 2017, p. 131).

- ① 학생들은 연주 영역과 그 문헌을 가르치는 페даго지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의 2/3 또는 최소한 1/3을 차지한다.
- ② 학생들은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학, 민속 음악학 및 연주와 같은 전공 외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음악적 능력을 넓히고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음악 공통교과목은 교과과정의 최소한 1/3을 차지한다.
- ③ 학생들은 전공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최종 프로젝트, 논문 그리고 / 또는 리사이틀을 발표해야 한다.

(2) NCKP에서 제시하는 석사학위 과정의 가이드라인

2004년 NCKP에서 제시한 석사과정 가이드라인은 피아노 연주와 페다고지전공 석사학위(Master of Music in Piano Performance and Pedagogy)의 교과과정만을 다루고 있다. 그 주요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① 입학요건

- 피아노 연주전공 석사과정(M.M.)에 준하는 연주 능력
-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말하기, 이해하기, 쓰기)
- 기능적인 건반연주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 - 초견, 화성, 즉흥연주 등
- 최소한 한 학기의 피아노 페다고지 강좌를 이수하고 초급지도 가능한 능력

② 졸업요건

-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학습자에게 그룹과 개인 지도의 유형에서 피아노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
- 음악의 전반적인 영역, 그 외 교육적인 자료와 테크놀로지의 지식 습득
- 학생의 음악성과 테크닉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위의 자료들을 선택하고,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레퍼토리와 스타일의 작품에 걸쳐서 수준 높은 연주 능력

③ 교과내용

㉠ 기본 교과내용

- 피아노 연주의 기본이 되는 악곡 연주, 기초 테크닉의 개발, 음악이론의 기초, 초견, 청음, 앙상블 연주, 즉흥연주를 잘 연주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 그룹이나 개인레슨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균형있고 잘 배열된 레슨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 학생의 연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
- 스튜디오, 피아노 랩, 레슨실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신 테크놀로지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전문적인 협회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위해 도서관이나 기타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

㉡ 대학 진학 이전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내용

- 최근의 학습이론, 연령별 특성, 그리고 학습 스타일에 대한 기본 지식
- 최근 초급 교재의 심도있는 분석과 지도방법

4) <http://www.keyboardpedagogy.org/images/MMpiped.pdf>

- 테크닉 교재, 초급과 중급 레퍼토리, 그리고 기타 교육적 자료들에 대한 지식과 이 자료들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대화 기술과 행동
- 피아노 스튜디오를 경영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의식
- 유아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㉔ 대학생과 성인 학생들을 위한 교과내용

- 피아노 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클래스 수업에서 건반 기술을 계획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수준의 비음악전공 대학생들과 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클래스와 개인레슨을 계획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 최근 성인 교재와 병행교재의 심도있는 분석과 지도방법
- 주요 작곡가들의 중급 및 고급 초기 수준의 작품으로 표현력있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
-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대화 기술 능력

④ 기타 교과내용

참관수업, 지도실습, 유아음악 프로그램, 최신 뮤직 테크놀로지, 반주와 실내악 등

2) 미국 피아노 페다고지전공의 석사과정

공누이(2007)는 미국에서 활발히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 3개교를 선택하여 석사과정 교과과정을 비교·연구하였다. 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대학들의 교과과정은 크게 핵심전공분야와 기타음악분야, 졸업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각 대학마다 페다고지전공 학위 프로그램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따른 교과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1>에 의하면 3개교의 총 이수학점에 대한 핵심전공분야는 56.3-7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NASM 핸드북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비중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전공분야의 교과목은 피아노실기, 피아노교수법, 앙상블, 피아노문헌, 졸업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NASM의 석사과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연주와 문헌을 가르치는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목별로 살펴보면, 각 대학 학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피아노실기의 비중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캐롤라이나대학교 논문트랙, 오클라호마대학교

<표 1> 미국의 3개교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핵심전공분야 비교

학교명		핵심전공분야	학점
남감리대학교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피아노실기	8학점
		피아노교수법	14학점
		양상블(2학기)	2학점
		연주수업 참석(4학기)	0학점
		리사이트 또는 렉처리사이트	2학점
		소계	26학점(72.2%)
남캐롤라이나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리사이트 트랙	피아노실기	6학점
		피아노교수법	9학점
		피아노교수법 또는 피아노문헌	3학점
		리사이트	1학점
		소계	19학점(59.4%)
	논문 트랙	피아노실기	4학점
		피아노교수법	9학점
		피아노교수법 또는 피아노문헌	3학점
		논문	3학점
		소계	19학점(59.4%)
오클라호마 대학교 (University of Oklahoma)	페다고지를 강조한 연주전공	피아노실기	8-12학점
		피아노교수법과 피아노문헌	6-10학점 ⁵⁾
		리사이트 또는 워크숍(3시간 발표)	2학점
		소계	20학점(62.5%)
	페다고지를 강조한 음악교육 전공	피아노실기	4학점(2학기)
		피아노교수법	6학점(3과목)
		음악교육 관련 과목	4학점(2과목)
		선택(피아노교수법, 피아노실기 등)	4학점
		소계	18학점(56.3%)

페다고지를 강조한 음악교육전공의 경우 피아노실기가 4학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클라호마대학교 페다고지를 강조한 연주전공의 경우 피아노실기가 8-12학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아노교수법의 학점 역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클라호마대학교 페다고지를 강조하는 연주전공이나 음악교육전공에서는 피아노교수법이 6학점으

5) 피아노교수법은 2학점이며, 피아노문헌은 3학점이다(공누이, 2007, p. 9).

로 편성되어있는 반면에 페다고지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남감리대학교와 남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는 피아노교수법이 12-14학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아노교수법의 가장 높은 학점을 요구하는 남감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아노교수법에 관련된 세부적인 교과목을 살펴보면 즉흥연주(1학점), 클래스피아노교수법(2학점), 대학진학이전학생을 위한 문헌(3학점), 피아노페다고지 I (3학점), 피아노페다고지 II(3학점), 지도실습(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학의 졸업과제를 살펴보면 리사이틀 또는 논문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감리대학교는 피아노 연주와 페다고지전공 석사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졸업과제가 리사이틀 또는 렉처리사이틀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페다고지보다는 연주를 강조하는 교과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졸업과제는 전공 트랙에 따라 달리 요구하고 있다. 페다고지를 강조한 연주전공에서 리사이틀 또는 워크숍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점은 타 대학에 비해 특이한 교과내용이다. 더욱이 페다고지를 강조한 음악교육전공에서는 졸업과제가 없고 기타음악분야에서 2학점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NASM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타음악분야는 총 이수학점의 최소한 1/3을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개교의 기타음악분야는 총 이수학점의 27.8-43.7%를 보이고 있어 NASM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개교의 기타음악분야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음악사, 음악이론, 음악학, 음악인류학, 음악문헌, 연구방법, 그리고 선택과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NASM의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미국의 3개교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기타음악분야 비교

학교명		기타음악분야	학점
남감리대학교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음악사	6학점
		선택	4학점(1-3학점 신청 가능)
		소계	10학점(27.8%)
남캐롤라이나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리사이틀 트랙	음악사	3학점
		음악이론	3학점
		선택과목	5학점
		음악문헌과 연구방법	2학점
		소계	13학점(40.6%)

학교명		기타음악분야	학점
	논문 트랙	음악사	3학점
		음악이론	3학점
		선택과목	3학점
		음악문헌과 연구방법	2학점
		고급음악연구법	2학점
		소계	13학점(40.6%)
오кла호마 대학교 (University of Oklahoma)	페даго지를 강조한 연주전공	음악사 및 문헌	6학점
		음악이론	6학점
		소계	12학점(37.5%)
	페даго지를 강조한 음악교육전공	음악학, 음악인류학, 음악문헌	6학점
		음악이론	3학점
		음악이론 또는 비음악분야 과목	3학점
		음악교육분야 연구방법론	2학점
		소계	14학점(43.7%)

2.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1998년 가천대학교에서 일반대학원 음악학과에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이 개설된 이후로 서울, 경기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대학에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과정을 설치하였다. 2018년 현재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10개교 11개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별 입학요건, 졸업요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운영현황을 살펴보면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대학별 대학원 요람, 그리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1) 대학별 입학요건

(1) 지원자격

<표 3> 국내 대학원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 석사과정 지원 자격

대학명	지원 자격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 국내·외 대학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하려는 전공과 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타 전공을 이수한 자도 지원 가능하나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함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대학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 가능함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분야도 지원 가능함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과정의 출신학과 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한세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 대학원	•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취득(예정)자 (단, 비전공자는 수업연한 외에 추가로 전공실기와 이론 및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함)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학과는 학사 출신학과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0개교 11개 대학원 모든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 석사과정의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그에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의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피아노 비전공자나 음악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한 취지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피아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 피아노 전공자들이 연주자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NCKP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입학요건은 “피아노 연주전공 석사학위에 준하는 연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시한 기준과는 동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2) 전형방법

국내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전형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구술/면접, 실기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실기전형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학과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상명대학교를 제외하고 피아노 연주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실기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연주전공의 실기전형과는 달리 8-10분 정도의 자유곡으로 실기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모집요강에 ‘음악학과의 경우 교과과정을 통해 피아노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를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보다는 피아노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 보인다. NCKP가 제시하는 피아노 페даго지 석사과정 입학요건에서 “피아노 연주전공 석사과정에 준하는 연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국내 대학원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전형방법 및 졸업요건

대학명	전형방법	졸업요건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유곡(10분 이내), 교습실습	- 최소 24학점 - 논문과 연주(40분)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자유곡 1곡(빠른 악장 1악장)	- 최소 24학점 - 연주(30분)와 논문(실기발표 보고서) 또는 6학점 추가 이수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유곡 1곡 (소나타일 경우 빠른 악장)	- 최소 27학점 - 논문과 렉처리사이트(50분)

대학명	전형방법	졸업요건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Beethoven Sonata 제1악장, 자유곡 1곡(8분)	• 최소 24학점 • 논문과 실기발표(50분)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 자유곡 1곡 ※ 음악학과: 교과과정을 통해 피아노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 최소 24학점 • 실기 발표(35~40분) 또는 렉처리사이트 / 논문 또는 6학점 추가 이수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 자유곡 1곡	• 최소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 • 30분 이상의 렉처리사이트 또는 지도발표 / 논문 또는 6학점 추가이수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자유곡 1곡	• 최소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 • 연주(40분)와 논문 또는 학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10분 내외 자유곡 1곡 (소나타일 경우 빠른 악장)	• 최소 30학점 • 논문, 렉처리사이트(60분), 6학점 추가 이수 중 택 1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Beethoven Sonata(전악장), 낭만 자유곡 1곡	• 최소 33학점 • 논문과 독주회(60분) 또는 독주회와 렉처리사이트, 렉처리사이트에 기초한 논문
한세대학교 페даго지대학원	• 10분 이내의 자유곡 1곡	• 최소 30학점 • 논문, 연주(50분), 렉처리사이트 중 택 1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자유곡 1곡	• 최소 24학점 • 논문

2) 대학별 졸업요건

국내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학과의 졸업요건을 살펴본 결과 졸업 이수학점은 24-33학점으로 되어있다. MASM 핸드북에는 석사과정 졸업요건으로 학기제의 경우 최소 30학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세대학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 다른 졸업요건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논문이나 리사이트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NASM에서는 최종적으로 논문과 리사이트를 모두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가천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과 중앙대학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는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리

사이틀과 간단한 소논문으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 외 대학들은 논문, 리사이틀, 렉처리사이틀, 6학점 추가 이수 중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는 등 졸업요건을 완화시키는 점으로 보아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학생들의 수준이 연주전공 학생들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과내용

대학마다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교과내용으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를 언급하는데 적절한 예시를 보일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연주, 페다고지, 반주전공) 내규에 실린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졸업 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연주자와 지도자, 그리고 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과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 연주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중앙대학교에서는 <표 5>와 같이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표 5>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페다고지전공 교과내용

구분	과목명	학점
선수과목 (5과목 이수)	서양음악사 1,2, 시창, 청음 1,2, 화성법 1,2(필수) 대위법 1,2, 악식론 1,2 중 5과목 선택	각 과목당 3학점
공통필수과목 (4과목 이수)	① 문헌: 중세,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사 중 택 2 ② 이론: 고급화성법, 고급악식론, 고급대위법, 고급음악분석 중 택 2 ③ 음악논문작성법, 음악연구방법론 (문헌이나 이론과목으로 인정함)	각 과목당 3학점 졸업평가방안: 논문과 독주회 (1시간 이상) 또는 독주회와 렉처리사이틀 총 2회 발표와 렉처리사이틀에 기초한 논문
전공필수과목 (7과목 이수)	① 전공실기: 전공실기 1, 2, 3, 4(공통필수) ② 세부 전공과목 피아노페다고지, 피아노지도철학, 피아노페다고지문헌연구, 피아노자료 및 교재연구 중 택 3	

※ 선수과목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미포함

6) http://graduate.cau.ac.kr/pdf/3305_1.pdf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피아노교수학과(피아노교수학전공, 피아노반주전공, 음악치료상담전공, 합창지휘전공)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실용적인 교과과정과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전문인을 배출하고 있다. 각종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실습을 통하여 예술문화산업에 꼭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⁷⁾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아노 페даго지 학문을 실용적인 음악분야로 간주하고 문화예술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수원대학교에서는 <표 6>과 같이 교과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6>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피아노교수학전공 교과내용

구분	과목명	학점
피아노교수학전공	피아노교수법 I, II	2학점
	피아노페даго지개론	2학점
	그룹피아노교수법 및 앙상블실습	2학점
	피아노문헌세미나	2학점
	피아노교수실습	2학점
	음악예술경영과 커뮤니케이션	2학점
	오르프	2학점
	Jazz 반주법	2학점
	피아노교재분석 및 연구	2학점
	유아영어음악교육	2학점
	음악이론	2학점
	음악사	2학점
	세미나 I, II, III	2학점
	특수악기	2학점
	전공실기 I, II, III, IV	2학점
	졸업연주	P/F
	졸업논문(선택)	6학점

<표 5>와 <표 6>에 제시한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두 대학의 피아노 페даго지 전공 프로그램의 성격이 매우 다른 양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중앙대학교는 피아노 연주와 문헌, 음악이론, 음악사, 그리

7) http://www.suwon.ac.kr/views/university/gruduate_school/music/index.html

고 다양한 페다고지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독주회 발표와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아노 전공자들에게 연주자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NASM 핸드북에서 제시하는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수원대학교 교과내용은 피아노 전공자들에게 전문 연주자와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피아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 교과목이나 자격증 취득, 실용성 성격을 띤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대학교 교과내용은 NASM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이외에도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등 특히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대학에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강좌 또는 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의 기본개념과 피아노 페다고지 학문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과정을 살펴보았다. NASM과 NCKP 핸드북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초하여 미국 대학의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 교과과정과 국내 대학의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 교과과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대학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분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3가지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 피아노 페다고지의 새로운 학문이 대학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였다.

1) 피아노 페다고지 학문의 인식 변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회, 그리고 전문성 있는 교육자들 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대학에 피

아노 페даго지가 도입되는 배경은 미국 대학에 도입되는 배경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중엽 피아노 교육학자들이 가정학교 교사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식적인 교사양성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사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20-1930년대에는 미국 전 지역 공립학교에 피아노 클래스의 움직임이 대중화되면서 학문의 성장이 급속하게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부응하여 대학에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1970년대 이후로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유학과 교수진에 의해 피아노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정규 교과과정에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대학에 확산시키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에 피아노 교재 출판사를 통해 미국에서 당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던 새로운 교재들이 도입되어 전국 각 지역에 피아노 교수법이 소개되면서 사회 현장 피아노 교사 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 교수들은 피아노 페даго지를 학문으로 보기보다는 교수법으로 보는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의 피아노 페даго지 학문에 대한 재인식과 전문적인 학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2)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전문 피아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학교, 전문적인 학회, 그리고 대학에서 전문성 있는 지도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피아노 페даго지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피아노 클래스가 성행함에 따라 교육학자들이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1800년대 말에는 NTNA가 결성되어 공립학교에서 피아노 교육을 하였으며 MTNA 멤버들이 미국 각지에서 피아노 교사 훈련을 하였다. 1920년대에는 MSNC는 공립학교 피아노 교사 양성을 위해 피아노 분과를 만들었다. 대학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피아노 페даго지 강좌를 개설하여 전문화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편 국내 대학에서는 피아노 페даго지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협회, 교재를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출판사들이 주로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도 전문적인 학회가 있으나 교사 교육을 실시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학회의 기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출판사들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교재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교사 세미

나,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단·장기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출판사 교육 담당 강사가 대학의 정규 수업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하루속히 속출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3)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의 학사 운영 강화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자의 교육목표는 전문 연주자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음악인으로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3개교 대학의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학위명에 따라 교과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NASM 핸드북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다.

한편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각 대학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출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입학요건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석사과정 지원자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피아노 비전공자나 음악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을 모집할 때 수많은 피아노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비전공자나 음악 비전공자가 영리적 수단으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피아노 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악 전공자일지라도 세부 전공별로 연주 능력뿐 아니라 음악적 지식과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다른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서 무분별한 석사과정 자격기준의 제시는 학생 모집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며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합대학명으로 학벌을 교체하고자 석사과정을 지원하려는 추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형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피아노 전공자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연주자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상의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다. 따라서 피아노 페다고지전공 교과과정은 피아노 전공자들이 전문 연주자뿐 아니라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피아노 페다고지전공은 연주전공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실기 과제곡을 요구하여 양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대학에서 학문의 기능을 상실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NCKP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입학요건은 “피아노 연주전공 석사 학위에 준하는 연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다. 대학에서는 학위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② 졸업요건

국내 대학원에 개설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의 졸업 이수학점을 살펴보면 24-33학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세대학교는 NASM 핸드북 석사과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30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는 논문과 리사이틀에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대학에서는 대체적으로 P/F로 처리한다. 졸업 이수학점이 24학점인 대학에서는 과목 당 학점이 3학점인 경우 8과목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므로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과목의 비중을 고려하여 학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NASM 핸드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또 다른 졸업요건은 논문과 리사이틀을 모두 발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졸업요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가천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앙대학교가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일반 독주회 프로그램에 미치지 못하는 연주회와 소논문을 요구하거나 논문, 리사이틀, 렉처리사이틀, 6학점 추가 이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졸업 결과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더욱이 연주전공 대학원생들은 50분 이상의 리사이틀을 요구하는 반면 페даго지전공 대학원생은 30-40분 정도의 리사이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페даго지전공 대학원생이 연주전공 대학원생보다 낮은 수준의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대학 당국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를 실용적인 학문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인식과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기업화 현상이 빚어낸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NCKP에서 제시하는 석사과정 졸업요건은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역시 “수준 높은 연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다. 대학은 질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배출은 피아노 교육계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③ 일반대학원 vs 특수대학원

국내에서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가천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 호서대학교의 5개교뿐이고 나머지 대학은 피아노 페даго지 학문을 실용적인 분야로 간주하여 특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내용은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학위과정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하는 자격증 취득, 실용성 성격을 띤 교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특수대학원에 피아노 페даго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연성 있는 학사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공분야의 최소 정원 확보와 교과목 개설 및 운영상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남용하여 자칫 학문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학위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 석사과정 지원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대학의 지원율이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대학의 지원율보다 훨씬 높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에는 한 학기 수십 명을 선발하는 반면에 명성이 낮은 대학에는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나 피아노 실기가 우수한 학생들이 피아노 페даго지전공을 기피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학에서 학사 운영에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해 보인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아노 페даго지를 실용적인 학문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편견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모순점이다.

이제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향에 맞추어 대학에서는 피아노 전공자에게 전문 피아노 연주자와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이 목표에 맞는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새로운 학문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피아노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아노 페даго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공누이 (2007). 피아노교수법전공 대학원 교과과정 연구.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논문집**, 3, 1-18.
- 김신영 (2008). 피아노 페다고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제. **International Piano**, 68, 56-58.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1994). **이화100년사 자료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완규, 권수미 (2008).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운영 및 교과과정 비교 연구. **음악교육연구**, 35, 107-149.
- 최승현 (2006). 1930년 이화 음악과의 피아노선율법 출간과 선진 20세기 피아노교수법의 도입. **이화음악논집**, 10(2).
- Bartels, A (1960). A history of class piano instruction. *Music Journal*, 18(6), 42, 96-97.
- Camp, M. W. (1981). *Developing p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Chapel Hill, NC: Hinshaw Music.
- Fisher, C. (2010). *Teaching piano in group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 Keene, J. A. (1982). A history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Lindstrom, R. W. (1976). Who started group teaching? *Clavier*, 15(2), 4.
- Logier, J. B. (1818). *A refutation of the fallacies and misrepresentations contained in a pamphlet*, entitled "An exposition of the new system of musical education." London: R. Hunter.
- Lyke, J., Hatdon, G. & Rollin, C. (2011). *Creative piano teaching*. Champaign, IL: Stipes Publishing L.L.C.
- Milliman, A.L.(1992). A survey of graduate piano pedagogy core course offering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Monsour, S. A. (1963). Piano classes are not new. *Clavier*, 2(5), 32-35.
- NASM (2017).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Handbook 2017-18*.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Richards, W. H. (1978, spring). History: A brief, chronology. *Piano Quarterly*, 101, 12-14.

Robinson, H., & Jarvis, R. L.(Eds.) (1967). *Teaching piano in classroom and studio*. Washington,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Uszler, M. & Larimer, F. (1986). *The piano pedagogy major in the college curriculum: A handbook of information and guidelines. Part II: The graduate piano pedagogy major*. Princeton, NJ: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http://arts.sejong.ac.kr/contents/arts/cor/intoout.html>

<http://arts.sejong.ac.kr/contents/arts/cor/sturecruit.html>

http://graduate.cau.ac.kr/2018/board_view.php?no=3443&page=&part=notice&category=입학

http://graduate.cau.ac.kr/pdf/3305_1.pdf

<http://graduate.hansei.ac.kr/graduated/683/subview.do>

<http://graduate.hansei.ac.kr/graduated/702/subview.do>

http://gradgate.hoseo.ac.kr/CmsHome/Admission_05.eznic

http://gradgate.hoseo.ac.kr/CmsHome/Admission_06.eznic

http://gradgate.hoseo.ac.kr/CmsHome/Treatise_01.eznic

<http://graduate.sejong.ac.kr/contents/graduate/cor/admissionguidelines.html>

<http://graduate.sejong.ac.kr/contents/graduate/cor/cradle.html>

http://graduate.sejong.ac.kr/contents/graduate/cor/music_2.html

<https://grad.smu.ac.kr/grad/admission/guideline.do>

<https://grad.smu.ac.kr/grad/departement/introduction31.do#tab6632>

<http://gss.sookmyung.ac.kr/gss/2072/subview.do>

<http://ibook.gachon.ac.kr/Viewer/GU53GNXUK6L9>

<https://musg.suwon.ac.kr/hak01.htm>

<https://musg.suwon.ac.kr/pp03.htm>

<http://performarts.ewha.ac.kr/>

<https://totalart.kookmin.ac.kr/admission/collect>

[http://www.gachon.ac.kr/major2/ilban/data/overview\(kor\).pdf](http://www.gachon.ac.kr/major2/ilban/data/overview(kor).pdf)

<http://www.keyboardpedagogy.org/images/MMpiped.pdf>

<http://www.suwon.ac.kr/views/academic/gruduate/curriculum/index.html>

ABSTRACT

The New Light upon Piano Pedagogy on the Times

Kim, Shin Young

This study is aimed, through right understanding of piano pedagogy, to guide the settlement of the new field of piano pedagogy in our country.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o see how the piano pedagogy has been developed till now. Analysis is also made to compare the curriculum of master course in our country on the basis of the master degree program in 3 American universities and the guideline of master degree of piano pedagogy from the main studies in America.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need a new understanding of professors of piano pedagogy and an improvement of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master degree program. Some urgent tasks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growth in the new field of piano pedagogy in cooperation of colleges and the studies.

Key words: piano pedagogy, history of piano pedagogy, curriculum of piano pedagogy

투고일: 2018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9년 1월 17일(1월 25일), 게재확정일: 2월 1일